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시정운영 방향·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 논의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 대변하는 의견 시정 적극 반영 할 것”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서완석)가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본격화 했다.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언론, 법률, 교육, 문화, 예술, 관광 등 각계각층 전문가 20명으로 꾸려져 시정현안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위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장직을 당초 여수시장에서 민간 위원장으로 변경한 후 사실상 처음 개최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2024년 시정 운영방향

과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상황,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등에 대해 위원들과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밀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임기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전담 하에 체계적 관리, 섬 마다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로 2026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철저, COP33 유치에 대한 남해안남중권 상호 협력, 실현 가능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추진 등에 대해 당부했다.

또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연구·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시책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해 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는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만큼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고령·영세농가 대상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

순천시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실천하고자 고령·여성 등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한기(상반기 1. 29. ~ 3. 31. / 하반기 11. 1. ~ 12. 31.)에 운영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은 3인 2개 조로 구성하여 2개 권역별로 운영된다. 지난 1. 26일까지 파쇄 지원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파쇄 대행 작업을 실시한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 29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파쇄 가능한 농작물은 고추, 콩, 깨, 잡곡 등의 부산물과 3cm 이하의 과수 잔가지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불발소각 방지에 따른 산발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여성농 등 취약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영농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봄 잉태한 옥룡사 동백나무숲에서 사색여행 옥룡사 터와 1만여 그루 동백나무 실현한 비움·채움 미학

광양시가 다가오는 입춘을 맞아 봄을 잉태한 옥룡사 동백나무숲을 거닐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켜는 사색여행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 2월의 으뜸숲인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옥룡사 터와 뿔뿔하게 들어선 1만여 그루 동백나무가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공간이다.

백운산 지맥인 백계산 남쪽에 자리했던 옥룡사는 선각국사 도선이 35년간(864-898년)

머물며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천년 불교 성지(국가지적 제407호)이다.

동백나무숲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비보 풍수를 강조한 도선이 옥룡사를 중수하며 사찰 주변의 화기(火氣)를 누르고 땅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소실돼 몇 개의 주춧돌로 남았지만, 굵은 나이테를 자랑하는 동백나무들은 해마다 검붉은 동백꽃을 토해내며 천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 사찰 숲의 원형이라는 학술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높이 인정받아 천연기념물(제48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쭙고 메마른 겨울에도 수분을 듬뿍 머금은

조록빛 이파리로 활발한 광합성을 벌이며 붉은 동백을 잉태한 동백나무숲은 3월의 절정을 향한 기(氣)와 생명으로 충만하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국가사적 옥룡사지와 천연기념물 동백나무숲이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정중동의 공간”이라면서 “갑진년 청룡의 해에 천년의 기가 흐르는 옥룡사 동백나무숲 사색여행으로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주소정보 시설물 6월까지 일제조사 나선다

고흥군은 오는 6월까지 군민 생활 편의, 생활 안전을 위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 총 4만 8,484개로 ▲도로명판 5,234개 ▲건물번호판 4만 1,666개 ▲기초번호판 1,226개 ▲사물 주소판 358개이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 시설물의 훼손 유무와 설치 상태의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훼손이나 망실된(없어진)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확충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생활주소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역별 조사반을 구성해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스마트 KAIS’ 단말기로 실시간 이미지를 촬영하고 시설물의 조사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도 내 집 앞 건물번호판 관리와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매주 화요일 ‘친절 실천 다짐의 날’ 운영
군민이 감동하는 변화된 민원서비스 제공

보성군은 연 2회 친절도 자가진단 설문조사, 전화 및 방문 민원인 응대 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 민원 응대 요령을 갖춰 군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청사 1층 입구 2곳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해 방문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 및 주무관 안내,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내방 시 해당 부서까지 동행하는 등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와 군민의 알

집(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친절 실천 다짐문 낭독, 친절 구호 제창 등 고객 만족하는 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결의했다.

보성군은 주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주 화요일 ‘친절 실천 다짐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절 실천 다짐의 날’에는 친절함 마음가

보성=김덕순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